

생산적 활동과 이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조 윤 주*

본 연구는 유임금 노동, 자원봉사, 손자녀 양육과 같은 대표적인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생산적 활동과 이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상기한 활동별로 각 100명씩 총 300명을 면접 조사하였는데, 이 중 자원봉사자의 심리적 안녕감이 가장 높았으며, 활동시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는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이 가장 많았다. 또한 이들의 안녕감을 설명하는 변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임금 노동을 하는 여성 노인의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활동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적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자원봉사를 하는 여성 노인은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활동에 대해 가족으로부터 도구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손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노인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가계소득이 높을수록, 활동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많을수록, 가족으로부터 활동에 대한 정서적·도구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본 연구는 여성 노인을 생산적 활동의 주체로서 조명한다. 그리고 이들이 행하는 생산적 활동들을 종합, 비교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고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핵심 단어: 생산적 활동, 가족의 지지, 여성 노인, 심리적 안녕감

I. 서 론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지는 병약하다거나, 의존적이라거나, 무능력하다는 등 부정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의학 기술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물리적인 수명이 연장되었고 장수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남녀의 평균 수명은 각각 74.4세, 81.8세로 세계에서 30위와 18위를 기록하였다(UN, 2007). 반면 평균퇴직 연령

*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은 54.1세(통계청, 2006)로 조사되어 인간의 고통 중 무위고란 말도 있듯이 은퇴 이후 사망까지 20년 이상의 짧지 않은 시간의 공백을 채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더욱이 유례없는 저출산의 문제에 봉착한 우리 현실을 볼 때 고령 인구의 증가는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지수를 높이고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 따라서 고령 인구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노인 개인의 삶의 질을 위해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양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을 논할 때 간과하기 쉬운 첫 번째 문제는 포함되는 활동의 범위이다. 협의의 개념에 준한다면 돈으로 환산 가능한 시장가치를 지닌 활동만이 생산적 활동에 해당된다. 하지만 노년학자들은 노인의 활동을 기존의 경제학적인 관점만을 적용하여 평가하기에는 부적합하며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유임금 노동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기여라는 전제 하에 자원봉사나, 손자녀 양육, 타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 등의 비공식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윤순덕·한경혜, 2004; Glass et al., 1995; Klumb and Baltes, 1999).

두 번째 문제는 활동 주체로서 여성 노인의 배제이다. 성인발달론의 개념이나 그 연구대상은 대개 남성중심적으로, 돌봄과 같은 여성의 관심사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지적된 바 있다(Gilligan, 1982). 성역할 고정 관념으로 인해 여성 노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되고 여성의 유임금 노동에 대한 평가와 인식은 부족하였다. 생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나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던 자원봉사 역시 금전적 보상이 따르지 않을 뿐 내용에 있어 유임금 노동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또한 손자녀 양육과 같이 가정 내에서 여성들이 행하는 돌봄 노동은 생산적인 활동으로 포함하는 경향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등한시하였던 여성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65세 이후에도 취업을 지속하고 있는 여성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Riddick, 1985). 자원봉사나 손자녀 양육은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거나 긴밀하게 하며 자신이 유용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노인들의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병선, 1995; 권인수, 2000; 김미혜·정진경, 2003; Willigen, 2000).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적응 이론 중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에게서 그 삶의 질이 더 높다는 활동 이론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이라 할지라도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이에 대해 주위의 평가가 우호적이라면 노인의 만족도는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이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자신에게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 지

지를 받는다면 이는 개인의 자아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높게 지각하게 만든다. 노년기일수록 사회적 지지의 대부분은 가족으로부터 얻어진다는 콕(Cobb, 1976)의 연구처럼 인간이 사는 동안 여러 유형의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지만 가장 친밀하게,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라는 점에서 다른 사회적 관계보다 중요하다. 인간이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이 사회적 지지라 할 때 사회적 지지를 안녕감(well-being)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활동에 대한 성과나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한경혜, 1999; 권인수, 2000; Riddick, 1985; King et al., 1995; Aquino et al., 1996).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변인으로 생산적 활동 참여와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를 선정하여 이것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유임금 노동, 자원봉사, 손자녀 양육은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생산적 활동이며,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 활동들은 활동 참여 여부와 특징을 객관적으로 구분하고 측정하기가 용이하다.

여성들도 생산적 활동을 수행하여 왔으나 그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여 왔다. 또한 노부모 부양에 관한 자녀의 의식과 행동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더 오랫동안 노년 후기를 경험하여 노인의 문제는 곧 여성 노인의 문제로 통용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 노인들의 삶을 재조명하여 인적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고 가족 간의 유대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여성 노인이 생산적 활동 유형을 선택하거나 여성 노인을 위한 생산적인 활동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상의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생산적 활동 유형에 따라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가와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변인이 생산적 활동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II. 관련 연구 고찰

1. 노년기 생산적 활동 유형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productive activity)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학자마다 다양하다. 헤르조그 외(Herzog et al., 1989)는 생산적 활동 주체를 경제활동 인구만으로 제한한다면 노인이나 여성의 기여분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여성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에서 제외되고, 은퇴한 노인이 아동을 돌보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가족을 간병하는 등의 활동도 전통적으로 계산되는 생산적 활동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생산적 활동의 참여 여부가 노인의 효능감을 측정하는데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생산적 활동을 ‘유임금이든 아니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여기에 가사노동, 손자녀 양육, 자원봉사,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원조 등을 포함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글래스 외(Glass et al., 1995)도 금전적 가치와는 상관없이 노인의 무임금 활동도 유임금 활동처럼 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들은 노인의 생산적 활동을 가사노동, 정원 관리, 손자녀 양육, 유임금 노동, 자원봉사의 다섯 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클럼과 발테스(Klumb and Baltes, 1999)도 가사노동, 정원 관리, 잔심부름, 유임금 노동, 자원봉사, 친지 간병을 포함하여 타인을 돕는 것을 생산적 활동으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순덕·한경혜, 2004)에서도 농촌 노인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생산적 활동을 경제활동, 가사활동, 자녀 원조 활동, 친척 원조 활동, 이웃 및 친구 원조 활동으로 나누었다. 최근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를 ‘사회 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시장에서 제외된 일자리’로 정의하고 이를 보급하는데 힘쓰고 있다(보건복지부, 2006).

이와 같이 다수의 연구들이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을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유임금 노동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외에 자원봉사, 손자녀 양육, 친구나 친지·이웃에 대한 도움 제공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 일하는 노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자원봉사 참여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기혼 여성의 취업은 많아지고 있으나 자녀 양육을 담당할 기관이 부족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생산적 활동의 범

위를 유임금 노동, 자원봉사, 손자녀 양육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2.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안녕감

생산적 활동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 중 유임금 노동을 하는 노인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남성이 그 대상이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이다. 드물게 리딕(Riddick, 1985)의 연구에서 65세 이상 취업중인 여성이 은퇴한 여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고 사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로 관련 연구들이 많지 않은데, 서양열(2004)은 전라도 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의 참여 만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세 배 이상 임금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80%에 이르렀으나, 임금 수준 등 실태 조사에 머무르는 한계점이 있다. 윤희열(1996)은 자녀의 취업 찬성 여부 등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기는 했으나 노인의 직무 만족도라는 협의의 개념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생활 전반에 관한 적응 상태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

노인의 자원봉사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는다. 경제활동이나 자녀 양육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시간적 여유로 인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유용한 존재라는 가치감을 갖게 되어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고 소외감을 극복하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윌리건(Willigen, 2000)은 연령에 따라 자원봉사가 미치는 영향이 다른가를 살펴본 결과,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봉사활동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더 많이 증가하였고 자신의 건강이 개선되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식 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노인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연구(김미혜·정진경, 2003)가 증가하고 있는데, 활동 이론의 적용 등 이론적인 측면을 강조하거나 활성화 방안에 치중한 면이 있다.

생산적 활동의 또 다른 유형인 손자녀 양육은 조모 양육과 동일어로 간주될 정도로 여성 수행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것이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반되는 결과가 혼재한다. 서병선(1995)의 연구에서 취업중인 딸이나 며느리를 대신하여 여성 노인이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 조모와 손자녀 간에 애착 관계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노년기의 정서적, 심리적 소외감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노인이 여전히 자식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인식하게 되어 양육 역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도 공존하여 조

모들은 양육 과정에서 신체적 무리를 경험하였으며 사회 활동 참여와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했다(권인수, 2000).

이상과 같이 노년기의 대표적인 생산적 활동인 유임금 노동, 자원봉사, 손자녀 양육은 대체적으로 여성 노인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녕감은 생활에 대한 개인의 적응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리프(Ryff, 1989)는 안녕감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정서적인 안녕감에만 초점을 두고, 다양한 측면의 기능을 파악하는데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양질의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단순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원활하게 기능하는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안녕감의 구성 요인으로 자아 수용, 개인적 성장, 인생의 목표,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환경 숙달, 자율성을 언급하고, 이와 관련된 심리적 기능을 평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구성 요인들이 생산적 활동에 종사하는 여성 노인의 적응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리프(Ryff, 1989)의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을 종속 변인으로 연구할 것이다.

3. 생산적 활동과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유스트레스원(eustressor)이나 디스트레스원(distressor)을 완충하거나 매개하는 변인으로 자주 고려되어 왔는데, 생산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노인의 유임금 노동과 자원봉사활동 참여,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Aquino et al., 1996)에서, 우울감 수준이 낮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가족의 지지로 한경혜(1999)는 활동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자랑스러워하는 등의 정서적 측면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나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도구적 측면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받는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권인수, 2000)에서 사회적 지지와 손자녀 돌보기에 대한 부담감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부담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된 지지와 개인이 필요로 하는 지지의 적합도가 다를 경우 지지 제공의 효과가 반드시 정비례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생산적 활동과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인 관계임을 선행 연구 결과들이 밝히고 있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60세 이상의 여성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성 노인 10명을 선정하여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조사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여성 노인 314명을 대상으로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노인종합복지관, 종합병원, 어린이집 등을 유의표집하여 섭외하였고,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사하였다. 생산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자택을 방문, 본 연구자가 여성 노인에게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소요 시간은 평균 50분이었다.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문 조사를 거부하여 중단된 사례, 해당 대상에 부적합한 사례, 조사 내용이 부실하여 탈락된 사례 등의 14명을 제외한 뒤 총 30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기 위해 투입한 변인들은 이들이 참여하는 생산적 활동의 유형, 활동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활동에 대한 만족도,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였다. 연령, 배우자 유무, 총가계소득, 주관적 경제 상태, 건강, 종교 유무, 교육 수준은 통제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활동에 참여하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지를 조사한 항목으로, 보상이 있는 경우 월 만원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표기하였다.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매우 불만족한다(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4점)’까지 4점 척도이다.

생산적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위한 가족 지지 척도(Family Support Inventory for Worker, King et al., 1995)’와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참고하여 문항을 수정, 제작하였다. 정서적 지지에 관한 4개 문항, 도구적 지지에 관한 4개 문항 등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중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8점부터 3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일관성 계수 Cronbach α 는 0.761이었다.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은 ‘심리적 긍정적 기능 척도(Psychological Positive Functioning, Ryff, 1989)’ 18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부터 ‘매우 동의한다(6점)’로 6점 척도였으나 예비 조사 결과 연구대상이 6점 척도로 세분화하여 응답하는 능력이 떨어져 4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 α 는 0.790이었다.

우선 조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활동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 편차,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χ^2 검증을 하였다. 다음으로 생산적 활동의 유형에 따라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고 사후 검증을 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활동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활동에 대한 만족도,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가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생산적 활동 유형별 여성 노인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 대상자 중 유임금 노동 집단, 자원봉사 집단, 손자녀 양육 집단은 각 100명이다. 여성 노인의 연령은 60세부터 84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65.6세였으며, 이 중 자원봉사자의 연령이 가장 높았다($\chi^2=42.654$, $p<0.01$).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좋은 편이다’와 ‘매우 좋은 편이다’가 82.3%로 대부분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3.3%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학력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34.3%)’이 가장 많았고, ‘중학교 졸업(22.7%)’, ‘대학교 졸업(22.0%)’ 순이었다. 건강 상태나 종교, 학력 수준면에서 세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총가계소득은 ‘51-100만원’이 22.0%, ‘151-200만원’이 21.0%를 차지하였는데 집단 간에 차이가 있어서($\chi^2=66.071$, $p<0.01$), ‘51-100만원’과 ‘151-200만원’은 자원봉사와 손자녀 양육 집단이, ‘101-150만원’은 유임금 노동 집단이 많았다. 본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경제 상태는 ‘좋은 편이다’가 반수 이상으로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결혼 상태는 ‘유배우자(68.1%)’가 가장 많았으며 ‘사별’은 27.3%였다. 이 중 자원봉사 노인이 사별한 빈도가 가장 높았다($\chi^2=6.875$, $p<0.05$). 전국 여성 노인(통계청, 2005)과 비교해보면, 본 연구의 대상이 학력이나 소득 수준면에서 일반 여성 노인보다는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 여성 노인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생산적 활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유임금 노동 여성 노인이 종사하는 직종은 ‘서비스직(32.0%)’이 가장 많았다. 하루 활동 시간은 ‘5시간 이상(50.0%)’이 반수로 이는 전업으로 전일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다수였기 때문이다. 활동을 하면서 이들이 받는 금전

<표 1> 생산적 활동 유형별 조사 대상자의 특성 분포

	전 체(n=300)	유입금노동(n=100)	자원봉사(n=100)	손자녀양육(n=100)
연령				
60-64세	50.7%	63.0%	41.0%	48.0%
65-69세	29.3%	26.0%	23.0%	39.0%
70-74세	5.0%	11.0%	21.0%	13.0%
75-79세	3.3%	-	10.0%	-
80-84세	1.7%	-	5.0%	-
건강 상태				
매우 나쁜 편	1.7%	2.0%	3.0%	-
나쁜 편	16.0%	15.0%	16.0%	17.0%
좋은 편	73.0%	72.0%	71.0%	76.0%
매우 좋은 편	9.3%	11.0%	10.0%	7.0%
종교				
없음	16.7%	17.0%	13.0%	20.0%
있음	83.3%	83.0%	87.0%	80.0%
학력 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19.7%	13.0%	26.0%	20.0%
중학교 졸업	22.7%	25.0%	23.0%	20.0%
고등학교 졸업	34.3%	38.0%	29.0%	36.0%
대학교 졸업	22.0%	22.0%	21.0%	23.0%
대학원 졸업 이상	1.3%	2.0%	1.0%	1.0%
총가계소득				
50만원 이하	8.0%	2.0%	12.0%	10.0%
51-100만원	22.0%	18.0%	24.0%	24.0%
101-150만원	11.0%	25.0%	7.0%	1.0%
151-200만원	21.0%	12.0%	24.0%	27.0%
201-250만원	16.0%	14.0%	12.0%	22.0%
251-300만원	6.3%	14.0%	5.0%	-
300만원 이상	13.7%	13.0%	12.0%	16.0%
기타	2.0%	2.0%	4.0%	-
주관적 경제 상태				
매우 어려운 편	0.6%	-	2.0%	-
어려운 편	34.0%	38.0%	30.0%	34.0%
좋은 편	62.7%	59.0%	66.0%	63.0%
매우 좋은 편	2.7%	3.0%	2.0%	3.0%
배우자 유무				
없음	31.9%	25.0%	42.0%	29.0%
있음	68.1%	75.0%	58.0%	71.0%

적인 보상은 ‘51-100만원(34.0%)’, ‘50만원 이하(28.0%)’의 순이었다.

여성 노인들이 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은 ‘노인복지관 내 식당급식관리(29.0%)’가 가장 많았고, 하루 활동 시간은 ‘3-4시간(31.0%)’과 ‘4-5시간(24.0%)’으로, 자원봉사 기관에 따라 주나 월 단위로 일정이 계획되어 당번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노인이 정기적으로 큰 부담없이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원봉사시 금전적인 보상은 응답자 전체가 ‘없다’고 답하였고, 활동기관에 따라 점심 식사를 제공받기도 하였다. 조사 대상 중 사례비를 받는다는 경우가 한 명 있었으나 자원봉사의 본래 취지와는 다소 상이하다고 판단하였고 봉사자도 자원봉사라기보다는 유임금 노동의 연장으로 생각하여 분석시 제외하였다.

손자녀 양육의 현황으로 여성 노인이 손자녀를 돌보는데 하루에 드는 시간은 ‘5-6시간(42.0%)’이 가장 많았고, ‘4시간 이하(31.0%)’는 그 다음이었다. 하지만 9시간 이상을 돌보는 비율도 11.0%나 되었고, 심지어 ‘18시간’을 일하는 노인도 있었다. ‘5-6시간’이 가장 많았던 것은 연구대상 노인의 손자녀 연령이 ‘3세’와 ‘4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연령대의 손자녀는 교육기관에 다닐 수 있고, 그런 경우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자

<표 2> 생산적 활동의 현황

유임금 노동(n=100)		자원봉사(n=100)		손자녀 양육(n=100)	
직종		종류			
전문직	9.0%	노인복지관 내 급식 관리	29.0%		
기술/준전문직	20.0%	노인복지관/병원 안내·접수	20.0%		
사무직	3.0%	양로원 말벗 도우미	14.0%		
서비스직	32.0%	병원 내 의료용품 관리	12.0%		
판매직	27.0%	탐굴공원·청계천 환경 정리	11.0%		
단순노무직	9.0%	기타	14.0%		
활동 시간		활동 시간		활동 시간	
1시간 미만	5.0%	1-2시간	13.0%	4시간 이하	31.0%
1-2시간	8.0%	2-3시간	20.0%	5-6시간	42.0%
2-3시간	7.0%	3-4시간	31.0%	7-8시간	16.0%
3-4시간	16.0%	4-5시간	24.0%	9시간 이상	11.0%
4-5시간	14.0%	5시간 이상	12.0%		
5시간 이상	50.0%				
금전적 보상		금전적 보상		금전적 보상	
50만원 이하	28.0%	없음	100.0%	없음	39.0%
51-100만원	34.0%			10-20만원	21.0%
101-150만원	14.0%			21-30만원	13.0%
151-250만원	20.0%			31-50만원	23.0%
251만원 이상	4.0%			51만원 이상	4.0%

너로부터 받는 수고비는 ‘없음(39.0%)’과 ‘31-50만원(23.0%)’ 순이었다. 친인척이 아닌 외부인에게 자녀 양육을 의뢰할 경우 비용이 월 100만원을 상회하는 실태를 볼 때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지원 제공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1. 생산적 활동 유형별 심리적 안녕감과 가족 지지의 일원변량분석

생산적 활동 유형에 따른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가족 지지 정도의 차이는 <표 3>에 제시하였다¹⁾.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대상의 심리적 안녕감은 49.3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18-72점)를 고려해볼 때,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생산적 활동 유형별로 유임금 노동 집단은 46.9점, 자원봉사 집단이 51.5점, 손자녀 양육 집단은 49.6점이었다. Scheffé 검증 결과, 세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손자녀 양육 여성 노인, 유임금 노동 여성 노인의 순이었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 집단의 심리적 안녕감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았던 것은 유임금 노동 집단과 자원봉사 집단을 함께 살펴본 맥킨토시와 다니제리스(McIntosh and Danigelis, 1995)의 연구에서도 자원봉사자의 안녕감이 높게 나온 결과와 일치한다²⁾. 씨먼(Seeman, 1959)은 개인이 자신의 삶의 결과를 조절할 수 있다고 느끼거나, 지지적인 지역 사회의 일원이라고 믿거나, 자신의 일상적인 일들에서 가치를 발견하거나, 삶에 대한 목표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규범적인 수단을 통해 얻어지는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자신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원봉사활동이 유임금 노동이나 손자녀 양육에 비해 이러한 조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는 전적으로 자신의 자유 의지로 활동 참여 여부와 활동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 의무감과 부담감이 비교적 적으며, 기존의 가정생활이나 직업 생활과는 다른 환경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발테스와 발테스(Baltes and Baltes, 1990)가 제안한 ‘선택·최적화·보완 전략’과 같은 적응 전략을 활

-
- 1) 생산적 활동 유형이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생산적 활동 유형이 2.4%의 변량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p < 0.01$), 이를 토대로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상기한 세 가지 생산적 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선행 자료는 없으며 단지 현재 몇 가지 활동을 수행하는가를 파악한 연구(윤순덕·한경혜, 2004)가 있을 뿐이다. 유임금 노동, 자원봉사, 타인에 대해 도움 제공을 포함하여 살펴본 연구가 있으나 집단간 차이는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활동 유형에 따른 안녕감의 집단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으므로 인용하지 않았다.

<표 3>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 차이

	유임금 노동 (n=100)	자원봉사 (n=100)	손자녀 양육 (n=100)	전 체 (n=300)	F
종속변수					
심리적 안녕감	46.86 ^c	51.47 ^a	49.64 ^b	49.34	23.88***
독립변수					
가족의 지지	21.05 ^b	21.69 ^b	22.11 ^a	21.62	3.13**
정서적 지지	10.96	11.19	11.26	1.14	0.86
도구적 지지	10.09 ^a	10.50 ^a	10.85 ^a	10.48	5.04***

주: 1) ** p<0.05, *** p<0.01

2) a, b, c: 사후 검증 결과 같은 문자끼리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 예를 들어 가족의 지지는 손자녀 양육 집단에서 많으나^(a), 유임금 노동 집단^(b)과 자원봉사 집단^(c)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용하여 자신의 삶의 결과를 조절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자원봉사활동들은 숙련된 기술이나 지식의 요구도가 높지 않은 보조적인 활동들이 많아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활동으로 축소하여 선택하고, 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활동시 노인들은 성취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자원봉사자들은 단체로 활동하며 수행 기간 중 활동 평가나 친목을 위한 시간이 별도로 진행되어 봉사활동이 사회적 교류를 확대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된 동기로 ‘남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려고’가 가장 많았는데, 이타주의나 약자에 대한 보호는 인간의 본능적인 태도라 하였듯이(Bowlby, 1969), 친사회적인 행동을 통해 본능이나 사회적 책무에 충실하여 안녕감이 높을 수 있다. 끝으로 여성 노인이 자신보다 다소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비교 과정을 통해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상황을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어(Usui et al., 1985), 심리적인 안녕감을 높게 유지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생산적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를 보면, 유임금 노동 집단은 21.1점, 자원봉사 집단은 21.7점, 손자녀 양육 집단은 22.1점이었다(<표 3> 참고). 가능한 점수 범위(8-32점)를 고려해볼 때, 여성 노인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Scheffé 사후 검증 결과, 손자녀 양육 집단의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 점수가 자원봉사 집단과 유임금 노동 집단보다 높았다. 즉, 활동시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 정도는 손자녀 양육 여성 노인이 자원봉사 여성 노인과 유임금 노동 여성 노인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가족의 지지는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손자녀를 돌보는 여성 노인이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더 많이 받았던 이유는 노모가 자신의 자녀를 돌봐줌으로 인해서 성인 자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고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므로 성인 자녀도 부모에게 지지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상호 호혜성이 다른 활동보다 높으며 교환 이론 내지는 공평 이론이 적용된 하나의 예라 하겠다. 또한 지지원의 범위도 고려할 수 있어서 손자녀를 키우는 여성 노인들은 이로 인해 외부 활동 등 다른 사회적인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접하게 되는 대인 관계는 가족에 국한될 수 밖에 없으므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가족의 역할이 다른 어느 집단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손자녀를 돌보는 여성 노인이 제공된 지지의 양을 높게 지각하는 개인의 성향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 여성의 정체성은 관계적 사건과 강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프렌취 외(French et al., 1995)의 연구에서처럼 직장 생활이나 자원봉사와 같이 가정 밖의 사회적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익숙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는 곧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첫 번째 연구 문제에서 생산적 활동 유형이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유형별로 구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³⁾.

1) 유임금 노동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먼저 제1단계에서는 연령, 배우자 유무, 총가계소득, 주관적 경제 상태, 건강, 종교 유무, 교육 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다음 제2단계에서는 유임금 노동시 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투입하였다. 마지막 제3단계에서는 활동에 대한 가족의 정서적·도구적 지지 정도를 투입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3) 독립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해 변인 간 상호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는데, $r=0.500$ 이상인 변인은 없었으며, 활동 유형별로 eigen 값과 Durbin-Watson 계수는 유임금 노동 집단의 경우 각각 11.020, 2.065, 자원봉사 집단은 10.029, 1.521이었다. 손자녀 양육 집단은 10.710과 2.149로, eigen 값이 15이하이고, Durbin-Watson 계수가 2에 근접하여 회귀분석에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유임금 노동을 하는 여성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제1 단계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은 25.7%였다. 제2단계에서 유임금 노동의 외적·내적 보상과 관련된 변인이 첨가됨으로써 8.4%의 변량이 추가로 설명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34.1%의 변량이 설명되었다. 마지막 제3단계에서 지지 정도가 투입되어 2.0%의 변량이 추가로 설명되었으며,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전체 변량의 36.1%를 설명하였다. 최종적으로 교육 수준($b=0.401$, $p<0.01$)은 여전히 유의한 변인으로 남아 있었으며, 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b=-0.269$, $p<0.10$)은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해 보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활동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적을수록, 유임금 노동을 하는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여성 노인의 교육 수준이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이었던 것은 박기남(200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인데,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더 잘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다. 특히 고학력의 여성 노인들이 소수인 상황에서 이들은 결혼을 통해 신분이 상승·지속되거나 보다 양질의 조건으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본 연구 결과에서 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적을수록,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선행 연구(서양열, 2004)와는 반대되는 결과인데, 본 연구대상으로 조사된 직종의 특징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생계형 취업자보다는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활동하는, 예를 들면 전통문화지도사는 금전적 보상은 다소 적다고 할 수 있지만 활동 내용이 준

<표 4> 유임금 노동 여성의 표준화된 회귀계수($n=98$)

	모델1	모델2	모델3
상수	35.895***	39.547***	35.936***
연령	0.181*	0.091	0.096
배우자 유무(1=유/0=무)	0.006	-0.030	-0.005
총가계소득	-0.303**	-0.110	-0.155
주관적 경제 상태	0.064	0.008	0.017
건강	-0.048	-0.055	-0.081
종교 유무(1=유/0=무)	-0.064	-0.074	-0.054
교육 수준	0.526***	0.451***	0.401***
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		-0.315***	-0.269*
활동에 대한 만족도		0.172	0.166
활동에 대한 가족의 정서적 지지 정도			0.134
활동에 대한 가족의 도구적 지지 정도			0.052
R ²	0.257	0.341	0.361

주: * $p<0.10$, ** $p<0.05$, *** $p<0.01$

전문직에 근접하여 호응이 높았다. 따라서 취업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보다 중시하는 노인도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자원봉사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변인 투입 순서는 유임금 노동 집단과 동일하나 제2단계에서는 연구대상 중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금전적 보상을 받은 사례가 없어서 활동의 금전적인 보상 변인은 제외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자원봉사를 하는 여성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은 9.9%였다. 제2단계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내적 보상 변인이 첨가됨으로써 5.1%의 변량이 추가로 설명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15.0%의 변량이 설명되었다. 마지막 제3단계는 자원봉사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가 첨가됨으로써 4.7%의 변량이 추가로 설명되었고,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전체 변량의 19.7%를 설명하였다.

최종적으로 활동에 대한 만족도($b=0.236, p<0.05$)는 여전히 유의한 변인으로 남아 있었으며, 활동에 대한 도구적 지지 정도($b=0.223, p<0.10$)가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활동에 대해 가족으로부터 도구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원봉사를 하는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자원봉사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이었던 것은 이 활동은 전적으로 노인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고, 자신이 가치를 두고 하는 활동이 기대를 충족시켜 만족도가 높다면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는 신

<표 5> 자원봉사 여성 노인의 표준화된 회귀계수(n=100)

	모델1	모델2	모델3
상수	54.568***	54.283***	47.920***
연령	-0.039	-0.125	-0.118
배우자 유무(1=유/0=무)	-0.108	-0.144	-0.156
총가계소득	0.117	0.082	0.055
주관적 경제 상태	-0.009	-0.030	-0.068
건강	0.046	0.034	0.058
종교 유무(1=유/0=무)	0.083	0.065	0.005
교육 수준	-0.310	-0.298	-0.222
활동에 대한 만족도		0.242**	0.236**
활동에 대한 가족의 정서적 지지 정도			0.035
활동에 대한 가족의 도구적 지지 정도			0.223*
R ²	0.099	0.150	0.197

주: * p<0.10, ** p<0.05, *** p<0.01

념이 강화되어 안녕감에 긍정적일 수 있다. 활동에 대한 가족의 도구적 지지 역시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지지가 많다는 것은 여성 노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인정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가족이 여성 노인이 하는 일에 관심을 보여 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여성 노인은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가치있는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안녕감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한경혜(1999)의 연구에서도 도구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가족이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준다거나 외부 활동이므로 교통편을 제공하는 등의 지지가 이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

3) 손자녀 양육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단계별로 투입한 변인들은 유입금 노동 집단과 동일하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손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제1단계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은 28.1%였다. 다음 제2단계에서는 6.6%의 변량이 추가로 설명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34.7%의 변량이 설명되었다. 마지막 제3단계에서 37.8%의 변량이 추가로 설명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72.5%의 변량이 설명되었다. 최종적으로 배우자 유무($b=0.203$, $p<0.01$)와 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b=0.196$, $p<0.01$)은 여전히 유의한 변인으로 남아 있었으며, 총가계소득($b=0.229$, $p<0.05$)이 새로운 설명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

<표 6> 손자녀 양육 여성 노인의 표준화된 회귀계수(n=99)

	모델1	모델2	모델3
상수	40.147***	32.663***	19.120**
연령	-0.020	-0.001	-0.039
배우자 유무(1=유/0=무)	0.262**	0.248**	0.203***
총가계소득	0.109	0.212	0.229**
주관적 경제 상태	0.218*	0.164	-0.035
건강	0.013	-0.015	0.008
종교 유무(1=유/0=무)	0.065	0.058	0.038
교육 수준	0.032	-0.040	-0.002
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		0.232**	0.196***
활동에 대한 만족도		0.178*	0.061
활동에 대한 가족의 정서적 지지 정도			0.447***
활동에 대한 가족의 도구적 지지 정도			0.287***
R ²	0.281	0.347	0.725

주: * $p<0.10$, ** $p<0.05$, *** $p<0.01$

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 중에서 정서적 지지($b=0.447, p<0.01$)와 도구적 지지($b=0.287, p<0.01$)가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하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가계소득이 높을수록, 활동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많을수록, 가족으로부터 활동에 대한 정서적·도구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손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이들에게는 배우자의 유무가 중요하여 배우자 존재가 안녕감에 긍정적이라는 칩퍼필드와 헤이븐(Chipperfield and Havens, 2001)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6-7년이 긴 현실을 볼 때 유배우자는 전통적으로 생계 부양자 역할을 담당해온 남편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덜 빈곤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혼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한 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외로움 때문에 자녀와 함께 살게 되고 그러다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게 되는 노인도 상당하였기 때문에 배우자 변인과 물질적인 측면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으로 총가계소득이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이어서, 수입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았던 연구 결과(이선미·김경신, 2002)와 일치하는데,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측면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타당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손자녀 양육을 하면서 받는 금전적인 보상 역시 여성 노인의 안녕감 증진에 기여했다. 여성 노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여유롭지 않을 때 양육을 통해 보상을 받는다면, 실제 받는 금액보다 그 의미는 더 크게 지각될 수 있다. 그리고 연구대상 대부분이 이전에 전업 주부였던 것을 감안하면 자신의 노동 대가로 받게 되는 생애의 첫 임금일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여러 변인들 중에서도 지지 정도가 상당히 높은 설명력을 보였는데, 초도로우(Chodorow, 1978)는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통해 여성은 대인 관계에 있어 민감성, 양육적 행동 등을 강조하는 문화적 규범이 내면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이 연령대의 전업 주부들은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성장하여 고정된 성별 분업에 익숙한 세대이므로 여성 노인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와 이들에게 미치는 가족의 영향력은 더욱 크다고 보여진다. 또한 손자녀 양육은 심신의 많은 노동력을 요하는 작업이므로 도구적인 지지 역시 이들에게는 긴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활동의 유형에 따라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가족의 지지에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여성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변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연령, 추가계소득, 결혼 상태에서 약간의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이들은 전국의 여성 노인보다 교육 수준이나 소득이 다소 높으며,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에 한정되었으므로 결과를 해석하거나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유임금 노동 집단, 자원봉사 집단, 손자녀 양육 집단 중에서 자원봉사자의 심리적 안녕감이 가장 높았던 결과를 볼 때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하는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와 유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UN에서도 임금 노동과 자원봉사의 결합을 노년기의 이상적인 생산적 활동으로 간주하며, 정부에서 표방하는 사회적 일자리도 대다수의 자원봉사활동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유임금 노동을 희망하는 노인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수반하여 자원봉사활동과 연계시킨다면 생산적 활동이 소득원으로서, 자기 계발의 기회로서, 참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봉사의 장점 중 하나가 주로 집단적으로 활동하여 사회적 관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인데, 손자녀 양육 여성 노인도 사교 기회의 욕구가 상당하였다. 그러므로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들끼리 자조 모임을 갖는 것도 하나의 개선책이 될 수 있으며, 아동 양육이 적성에 맞는 노인이라면 향후 보육 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추출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유임금 노동 집단에서는 교육 수준과 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취업시 학력 수준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고학력의 노인은 자신의 경력과 지식을 활용하려는 바램이 있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유임금 노동을 선택한다. 또한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는 직종에 종사할게 될 경우 활동 과정을 중시하여 금전적인 보상은 적더라도 심리적 안녕감은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유임금 노동에 참여하는 여성 노인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일하는 목적과 동기가 상이하므로 노인의 학력별, 경력별로 적합한 직종을 다양하게 개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여성 노인의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유임금 노동 집단에서 가족의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들이 지각하는 지지의 양도 적었을 뿐

아니라 제공된 지지와 여성 노인이 필요로 하는 지지와의 적합도가 맞지 않았을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 금전적인 보상은 전혀 없지만 활동 자체에 대한 보람 등 비물질적인 측면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봉사활동 종류 중에는 단순반복적이어서 참여 노인의 흥미가 반감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입금 노동과 마찬가지로 수행의 능력과 여건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유형의 수준으로 개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활동에 대한 가족의 도구적인 지지만이 중요하였는데 외부 활동이 원활하도록 일조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활동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 설명 변인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이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가족원 외에도 지지원이 다양화되어 있어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손자녀를 돌보는 여성 노인은 유입금 노동자나 자원봉사자에 비해 가족 중심적인 사고를 가져서 외적인 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가정 내에서 머무를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배우자의 존재나 가족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며, 양육에 대한 수고비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데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 결과 수고비를 받지 않은 경우도 상당하였으나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이라 할지라도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여성 노인의 양육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이 역시 생산적 활동임을 인식하도록 가족과 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더불어 물질적인 보상 뿐 아니라 가족의 관심과 협조가 보다 많이 요구된다.

특이하게도 자원 봉사 집단은 사회인구학적 면에서도 연령이 가장 높았고 배우자가 없는 비율도 높았는데 전통적으로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조건은 삶의 질에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의 안녕감이 가장 높았던 결과를 볼 때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적 측면 등 인성을 고려한 또 다른 변인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가족의 지지가 손자녀 양육 집단에서 가장 높았던 이유로 교환론적 관점이나 지지원의 범위 외에도 수혜자의 특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변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노인 뿐 아니라 지지를 제공하는 가족도 함께 조사한다면 보다 심도 있는 자료 수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생산적 활동과 이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실시되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인력 개발의 화두는 잠재되어 있는 여성 인력의 활용이라는 맥킨지의 보고에서처럼 본 연

구를 통해 여성 노인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와 자신의 안녕에 기여하는 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족의 기능이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서적·도구적 지지의 제공원으로서 가족이 주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공적 영역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 노인의 경우 가족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재발견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여성 노인을 생산적 활동의 주체로서 접근하여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살펴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상기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권인수 (2000)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 《아동간호학회지》 6(2): 212-223.
- 김미혜·정진경 (2003) “노인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헌신과 생활 만족에 관한 연구: 활동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4(8): 221-243.
- 박기남 (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 24(3): 13-29.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06) “노인복지 정책 추진 방향”
- 서병선 (1995) “조모의 손자녀 대리 양육 수행과 만족도 연구: 취업모를 자녀로 둔 여성 노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양열 (2004)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만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4(여름): 31-51.
- 윤순덕·한경혜 (2004) “농촌 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복지” 《한국노년학》 24(2): 57-77.
- 윤희열 (1996) “재취업 노인이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미·김경신 (2002) “노년기 부부의 생활 만족도와 우울 및 관련 변인 연구” 《한국노년학》 22(1): 139-157.
- 통계청 (2005) “2005 고령자 통계”.
- _____ (2006)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 한경혜 (1999)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사회문화연구소.
- UN (2007)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 Aquino, J. A., D. W. Russell, C. E. Cutrona and E. M. Altmaier (1996) “Employment Status,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Counseling Aging Society* 43(4): 480-489.
- Baltes, P. B. and M. M. Baltes (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 edited by P. B. Baltes and M. M. Baltes, Cambridge U. K.: Cambridge Press.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Belmont: Wadsworth.
- Chipperfield, J. G. and B. Havens (2001)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tatus Transitions and Life Satisfaction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56(3): 176-186.
- Chodorow, N. (1978)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Psychoanalysis and the Sociology of Gend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French, S. L., W. L. Gekoski and V. J. Knox (1995) “Gender Differences in Relating Life Events and Well-being in Elderly Individual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5: 1-25.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Glass, T. A., T. E. Seeman, A. R. Herzog, R. Kahn and L. F. Beckerman (1995) “Change in Productive Activity in Late Adulthood: MacArthur Studies of Successful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50(2): 65-76.
- Herzog, A. R., R. Kahn, J. N. Morgan, J. S. Jackson and T. C. Antonucci (1989) “Age Differences in Productive Activities” *Journal of Gerontology* 44(4): 129-138.
- King, L. A., L. K. Mattimore, D. W. King and G. A. Adams (1995) “Family Support Inventory for Workers: A new Measur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amily Member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s* 16(3): 235-258.
- Klumb, P. L. and M. M. Baltes (1999) “Time Use of Old and very Old Berliners: Productive and Consumptive Activities as Functions of Resources” *Journal of Gerontology* 54(5): 271-278.

- McIntosh, R. and N. L. Danigelis (1995) "Race, Gender, and the Relevance of Productive Activity for Elders' Affect" *Journal of Gerontology* 50(4): 229-239.
- Riddick, C. C. (1985) "Life Satisfaction for Older Female Home Makers, Retirees, and Workers" *Research on Aging* 7: 383-393.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eeman, M. (1959) "On the Meaning of Alien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4: 783-791.
- Usui, W., T. J. Keil and K. R. Durig (1985) "Socioeconomic Comparisons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0(1): 110-114.
- Willigen, M. V. (2000) "Differential Benefits of Volunteering across the Life Course" *Journal of Gerontology* 55(5): 308-318.

The Effects of Productive Activities and Family Support on Elderly Women's Psychological Well-being

Yoon Joo Cho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difference in psychological well-being (PWB) and family support and explore its factors by the types of productive activity: paid labor, voluntary activity, or caregiving for their grandchildren. Three hundred females aged over 60 currently participating in productive activities were interview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 First, PWB of volunteers is higher than any other group. Second, level of support provided by family members is highest for the group of grandchildren caregiving. Third, the variables affecting PWB for paid workers are educational level and material reward. As for the volunteers, PWB is explained by satisfaction with the given activity and instrumental support of their family members on it. PWB of grandchildren caregivers is explained by their marital status, income, material reward, emotional and instrumental support.

Key Words: productive activity, family support, the elderly women,
psychological well-being